

1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은행위기론 부각 [다우: 7,949.09pt (-4.01%)	대형 은행주들이 폭락하면서 美 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위기론이 고조되며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급락세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다우지수 8,000선이 붕괴되는 등 주요 지수들이 급락세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뉴욕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장중 낙폭을 더욱 키웠다.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보다는 은행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감한 부양외지 불구 증시약세 못 막아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할 것이란 기대감도 많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오바마의 취임식을 계기로 되레 더욱 부각되었음. 오바마 역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최악인 경제상황을 물려받아 큰 부담을 안고 대통령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스테이트 스트리트 50%대 폭락	4분기 이익이 71%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가 60%에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다. 의류업체인 폴로 랄프 로렌(Polo Ralph Lauren)은 골드만 삭스가 소비자 지출 위축을 이유로 `매도` 투자의견을 제시한 영향으로 10% 가까이 하락했음.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업체이자 다우 구성종목인 알코아의 주가도 알루미늄가격이 7일 연속 하락한 점이 악재로 작용하며 11%대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은행주 폭락..루비니 교수 "은행 시스템적 위기" 주장	부시 행정부 시절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중 절반 정도가 은행들의 구제자금에 지원됐지만, 은행권의 부실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감이 영향을 미쳤음. 앞서 마감한 유럽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전날에 이어 폭락세를 이어간 점이 부담을 줬음. 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날 "미국의 은행들이 시스템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음. 루비니 교수는 두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금융권 손실이 계속 상승해 3조6,000억달러에서 피크를 칠 것"이라며 "이같은 손실의 절반은 은행과 브로커리지 딜러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음.
유럽증시 하락..오바마 효과 '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일 유럽 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에 지수가 일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금융위기와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수가 꺾여 급락 장세를 벗어나지 못함.

제목	주요 내용
佛 "車 업계에 최대 60억유로 추가지원"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최대 60억유로(77억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20일 밝혔다. 피용 총리는 이날 자동차 및 부품업계 대표, 노조 대표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50억유로에서 많게는 60억유로까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동산시장, 올해도 '압울'	침체의 늪에 빠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58%의 중국 투자자들은 올해 1·4분기에 주택가격이 평균 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베이징만보가 20일(현지시간) 보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비관적일 것으로 내다봄.
EU 재무 "은행, 구제금융 자금으로 대출 나서야"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은행들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성명은 각 회원국이 은행들에 지원한 구제금융 자금은 은행 대차대조표 건전화에 쓰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확대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 전반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일본 편의점 매출이 백화점 놀러	일본에서 편의점이 백화점을 눌렀다. 불황의 여파로 백화점을 찾는 발길이 뜸 떨어진 반면 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편의점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역전됨. 일본 백화점협회는 19일 지난해 전국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4.3% 감소한 7조3813억 엔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엔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의점 매출에 못 미치는 수준임.
KT-KTF 합병 공식선언, 2011년 매출 20.7조 달성(종합)	KT와 KTF가 합병을 공식 결의 했으며, KT는 또 합병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 가능한 외국인 지분한도 초과 등에 대비, NTT도쿄모(KTF 10.72% 보유)를 대상으로 2억5,000만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함. KT는 KTF와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 컨버전스 산업을 선도하여 글로벌 사업자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IT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합병추진배경을 밝힘.
퇴출·워크아웃 후폭풍..6만가구 사업 '난항'	총 12개 건설회사에 퇴출 및 워크아웃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6만여가구의 아파트(타운하우스 포함)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퇴출 판정이 내려진 회사의 아파트는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사업장도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
국민연금, 해외사모펀드 투자 당분간 중단	국민연금기금이 해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위탁 투자를 잠정 중단.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20일 "일부 해외PEF 투자에 있어 위험관리 필요성이 커져 최근 이 투자부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신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시 국내 PEF를 통한 투자는 늘리기로 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